

# POLITICS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돕자” 도의회 특위 출범

### 광주 ‘청소년 자율공간’ 개소 남구 진월동...내년 10곳 목표

광주시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율공간 ‘따·숲’을 17일 남구 진월동에 개소,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청소년 자율공간’은 민선 8기 광주시 공약사업으로, 청소년이 비용 부담 없이 문화·오락 체험, 학습,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에 조성하는 소규모 청소년 전용공간이다. 광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문을 연 남구 청소년 자율공간 ‘따·숲’은 지난해 개소한 북구 임동, 광산구 비아동에 이은 세 번째 공간으로, 청소년 전용 라운지와노래방, 포토부스, 게임존, 북카페 등을 갖췄다.

아외테라스에는 캠퍼핑이 마련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또래와 소통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광주시는 ‘자율공간’을 조성할 때 청소년들이 공간 기획과 조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공간이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청소년 정책 실현의 플랫폼이자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며 “청소년 자율공간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주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광주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동구 대의동에 새 보금자리

광주시는 17일 동구 대의동으로 확장 이전한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의 개소식과 함께 고립 청년과 그 가족의 회복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날 개소식은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센터 운영 성과, 비전 발표, 새 공간 소개, 당사자 축하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21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 정식 개소,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올해 3월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동구 대의동으로 확장 이전했다. 새 공간은 상담실을 기존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자조모임과 사회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위한 참여공간도 2개로 확대했다. 특히 당사자가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는 ‘안심공간’에 공유주방과 미니카페를 마련, 주위의 간섭없이 세상과 소통하고 편안한 회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는 발굴부터 사회 복귀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372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571명에게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개인별 전문 상담, 자조모임 ‘아무튼 모여’, 생활습관 개선 ‘원.원.원.해요’, 대인관계 활동 ‘명랑한 은둔자 모임’, 사회참여 활동 ‘아무튼 출근’ 등이다.

센터는 고립 청년과 가족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 모델로 자리매김하며, 전국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의 벤치마킹 방문이 55차례에 이를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고립 청년들에게는 자신만의 속도로 사회와 연결하도록 돕는 마음심터 역할을 함으로써 은둔 탈출을 원하는 당사자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서대현·김화신 도의원, 위원장·부위원장 각각 선출 12월 4일까지 활동...“국내외 섬 경쟁력 강화 노력”

전남도의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17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을 위원장,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행사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의회 차원의 총력을 다하고자 구성됐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세계 섬 문화 공유와, 국내·외 섬 경쟁력 강화

여, 섬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국제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2012여수세계섬박람회’에 이어 또다시 여수를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대현 위원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의 섬 문화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특별위원회로 중점으로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서대현(더불어민주당, 여수2)을 필두로 이광일(더불어민주당, 여수1), 이동현



전남도의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17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성2), 최병용(더불어민주당, 여수5), 강정일(더불어민주당, 광양2), 한춘옥(더불어민주당, 순천2), 박선준(더불어민주당, 고흥2), 주종섭(더불어민주당, 여수6), 김화신(더불어민주당, 비례), 임형석(더불어민주당, 광

양1) 의원으로 이뤄진 특위는 오는 12월 4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김민석 총리후보청문회 24~25일 열린다

### 여야 최종 합의...오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도 확정...김 해명 불구 국힘 연일 비판

여야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이틀간 열기로 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7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18일 오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1차 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 등을 의결하기로 했다.

증인·참고인 명단은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1차 회의 당일 오전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의의 경우, 소관 위원회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기에 국회는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29일까지 심사를 끝내야 한다.

김 총리 후보자는 이날 자신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표적 사정으로 시작된 경제 개혁을 위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며 “어떠한 정치적 미래도 없던 내게 오

직 인간적 연민으로 1000만원씩을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 나게 절절하고 감사”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18년께 동일 형식의 차용증을 쓰고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빌린 점을 두고 통상적 사인 간 채무가 아닌 ‘조개기 후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돈을 빌린 경위를 소개하며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런 채무가 추징금 및 세금 압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SK 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200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던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징금 2억원을 당시 전세금을 털어가며 갚았다”며 “표적 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표적 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 막히는 증거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분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다”며 “전선만고 끝에 근 10억원의 추징금과 그에 대한 증거가산 증여세를 다 납부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은행 대출을 일으켜 사적 채무를 청산할 수 있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불법정치자금 제공 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김 총리 후보자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어떤 국민이 자진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쉽게 빌릴 수 있다”라며 “유력 정치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아들 유학비 수억 원, 생활비 2억3000만원, 교회 헌금 2억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인가”라며 “소득 출처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6억원의 추징금을 완납하면서도 자신이 7억원 늘었다”며 “수입은 국회의원 세비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남도국제미식박람회, 파리에 글로벌 홍보

### 코리아 엑스포 참가 파리한식협회와 업무협약 현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15일까지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코리아 엑스포(Korea Expo Paris 2025)’에 참가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집중 홍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코리아 엑스포는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에서 열렸다. 총 144개 국내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한류 확산과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는 국제행사로 진행됐다.

박람회 사무국은 엑스포에 참가해 전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의 전시관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남도미식의 고유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누

리소통망(SNS) 구독 이벤트와 남도미식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 참여를 유도하는 등 남도미식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현장에서 파리한식협회(회장 이종선)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해 그 의미를 더했다. 두 기관은 박람회의 유럽 현지 홍보, 청년 미식 셰프 인제 양성, 전남 식재료의 해외 진출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홍양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세계적 미식 강국인 프랑스에서 박람회를 소개하고, 국제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입장권은 오는 30일까지 티켓링크와 네이버를 통해 40% 할인된 가격인 6000원에 예약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15일까지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코리아 엑스포’에 참가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집중 홍보했다.

## 국정기획위원회 본격 논의...“정부조직개편TF 구성”

### 국정비전·조직개편·5년계획·재정계획·조세개혁 등 준비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7일 출범 이틀째를 맞아 본격적인 정책과제 논의에 들어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열고 약 1시간 남짓 분과별 정책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 조승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운영위는 매일 분과별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검토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기존 정책 외에 주요한 경제·사회 이슈를 논의할 추가 태스크포스(TF) 신설도 검토됐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와 공약 검토를 통해 주요 내용을 분류하고, 심층 분석을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별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남 균형발전특위와 정부조직개편TF, 조세개혁TF 등 5~6개의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조직개편TF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다른 분과가 참여하는 식으로 오늘 중 구성을 마칠 것”이라며 “전문위원회도 참여하고, 자문위원들의 이야기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등도 현재 구

성 중으로, 관련한 내부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는 세종시로 이동해 사흘간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 이행계획, 국민 체감 과제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된다.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 대변인은 “각 단계를 얼마나 압축할 것인지는 다음 주까지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향후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등과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전남도, 9월 김대중 평화회의 성공 개최 은힘

### 추진상황 보고회서 학술회의·문화행사 등 운영계획 살펴

전남도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2025 김대중 평화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난 16일 도청에서 열어 학술회의와 문화행사 등 세부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올해 세 번째를 맞는 김대중 평화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민주주의·인권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국내외에 널리 확산하기 위한 전남도 대표 국제행사다.

이날 보고회에는 공동위원장인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백학순 김대중평화센터 이사 등 집행위원 8명과 목포시, 신안군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전체 프로그램 구성과 세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보고회 주요 내용은 △학술회의 주제와 세션 구성 △온·오프라인 홍보계획 △문화행사와 출연진 계획 △국내외 참가자 관리 △행사장 공간 구성 △안전관리 대

책 등이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보완 사항을 살폈다.

전남도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남은 준비 기간 분야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완성도 높은 행사로 만들 방침이다.

명창환 부지사는 “성공적 평화회의 개최를 위해 개막 때까지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세밀히 점검하고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대비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 김대중 평화회의는 오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영암 호텔현대 바이라 한 목포와 목포 일원에서 국내외 석학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상상 평화의 새로운 비전’이란 주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